

# 종교 목적으로서의 정신개혁

崔 東 熙

## 目 次

- I. 천지개혁과 정신
- II. 자연 세계에 대한 정신 세계
- III. “무자기”에 의한 정신개혁

## I. 천지개혁과 정신

중국 문화 영역 안에서는 개혁(開闢)이라는 말이 널리 통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이 과연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개혁: ① 천지가 처음으로 생김. ②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우리말 큰 사전, 한국학회, 1994) 물론 사람마다 이해하는 내용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지만 이 사전의 말풀이로 개혁이라는 말뜻의 이해 범위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① 천지가 처음으로 생김”이 글자 뜻 그대로의 본래의 뜻이다. 개혁은 본래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생긴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이며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다. 이 문제는 천문학에 속해 있는데 저 중국의 고대문화에서도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커져 왔다.

저 중국 고대 문화 속에서 과연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생김” 곧 개혁(開闢)을 천문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개혁”이라는 말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중국 고대의 천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으로서는 가장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오래된 자료인 『회남자』(淮南子, 기원전 120년 쯤) 제3장 천문훈(天文訓)에 나타난 개벽을 엿보는데 그친다.

하늘과 땅이 아직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여 온통 가득 찬 듯 마구 날리는 듯하고 뻥하니 빈 듯 끝없이 이어진 듯하다. 그래서 태시(太始, 만물의 형체의 시초)라 한다. 태시가 허확(虛廓, 비고 넓은 것, 곧 공간)을 낳고 허확이 우주(宇宙, 공간과 시간으로 된 세계)를 낳고 우주가 기(氣)를 낳았다. 기에는 한계·구분이 있으므로 맑고 가벼운 것은 옅고 화려하여 하늘이 되었다. 그 무겁고 흐린 것은 엉기고 막혀서 땅(地)이 되었다. 天地未形, 馮馮翼翼, 洞洞瀾瀾, 故曰太始<sup>1)</sup>. 太始生虛廓, 虛廓生宇宙, 宇宙生氣. 氣有涯垠<sup>2)</sup>, 清陽者薄靡, 而爲天, 重濁者凝滯, 而爲地.(淮南子, 第三 天文訓)

여기서 빙빙 익익(馮馮翼翼)과 동동 촉촉(洞洞瀾瀾)의 여덟 자에 대해 고유(固誘, 後漢末)가 “형체가 없는 모양”(無形之貌)이라고 매우 짚막하게 풀이하였다. 앞뒤의 문맥으로 미루어 하늘과 땅 및 만물이 아직 그 형체를 갖추기 이전의 미묘한 상태를 아득히 상상하면서 그 당시의 표현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말들을 애써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그대로 재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미묘한 표현들이 애써 나타내려고 한 속마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형체가 없는 무엇”을 나타내려는데 숨은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인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형체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득히 차있는 듯 하면서 빨리 움직이는 듯(날리는 듯)하다. 이렇게 무엇인가 생겨날 듯 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아직 어떤 형체도 없어서 뻥하니 비고 넓기만 하지만 무엇인가 죽 이어져 머리도 꼬리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천지 만물이 아직 생기기 이전의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 인류는 그 문화의 초기에 어디서도 생각해 왔다. 이러한 상태를 혼돈(混沌)이라 하고 카오스(chaos)라 한다.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이 혼돈 또는 카오스로부터 생성하였다는 우주생성론(宇宙生成論)은 그리스에도 있었다.

이제 저 중국 고대문화 속에서 “개벽”(開闢)이라는 말이 본래 어떤 뜻으로

1) 원문은 太昭인데 왕인지(王引之)에 따라 太始로 고쳤다. 그리고 다음의 道始于道 太始生으로 고쳤다.

2) 원문은 限垠인데 왕염손(王念孫)에 따라 涯垠으로 고쳤다.

쓰여졌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에서는 그 동안 우주의 생성이라는 천문화적인 현상을 “개벽”이라고 말해 왔다. 우주의 생성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며 길이 수수께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신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현대과학의 우주생성의 이론도 현대적인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주의 생성(따라서 개벽)에 대해서는 자연과학 이외에 신화·종교·철학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종교적인 개벽의 관념·철학적인 개벽의 개념·자연과학적인 개벽의 현상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크나큰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물론 종교적인 개벽의 관념이다. 어떤 종교의 집단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독자적인 개벽 곧 우주 생성의 관념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그 관념은 『구약성서』의 창세기(舊約聖書, 創世記) 첫머리에 잘 나타나 있다. 앞에서 이미 본 『회남자』(淮南子)의 개벽의 관념은 대체로 유교(儒敎)적인 개벽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증산계통의 종파에도 그 나름대로의 개벽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느 종단의 기본적인 개벽 관념을 다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서는 「대순진리회」의 “정신개벽”(精神開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벽 관념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정신개벽은 한 종단의 종교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천지(우주)의 개벽에 맞먹는 개벽이 정신에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정신의 영역에서 저 천지 만물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과 같은 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대순신앙에는 상제님에 의한 천지개벽의 종교적인 개벽 관념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 개벽의 관념이 천지(우주) 이외의 영역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정신 영역에 적용된 것이 “정신개벽”이고 세계(人類社會)에 적용된 것이 “세계개벽”(世界開關)이다.

대순신앙에 전제되어 있는 종교적인 천지개벽은 상제의 성스러운 권능(權能)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요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바로 상제께서 삼계를 통찰(通察)하사 건곤(乾坤)을 조리(調理)하고 운화(運化)를 조련(調鍊)하시는...” “모든 천제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천명(天命)에 응하지 않고 생성됨이 없음을 뜻함이며,…….”(대순진리회 요람,

6-7쪽) 뒤 인용문에서 “천명”(天命)이란 “상제의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대순신앙의 종교적인 천지개벽의 관념은 대체로 “모든 천체와 삼라만상이다. 상제님의 뜻에 응하지 않고 생성될 수 없다.”는 말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대순신앙의 종교적인 천지개벽론 곧 우주생성론에 대한 종교철학적인 이해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지금까지 “정신개벽”은 천지개벽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살펴본 셈이다. 대순신앙에서는 천지개벽은 궁극적으로 상제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정신개벽도 개벽이라는 점에서 상제의 뜻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종단으로서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천지개벽이 상제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정신개벽도 상제에 뜻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천지개벽은 이루어졌다는 쪽이 강조되고 정신개벽은 이루어진다는 쪽이 강조되어 개벽이기는 하지만 서로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예감이 든다. 어쩌면 두 개벽이 그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예감이 들기까지 한다. 과연 전지 전능한 상제의 뜻에 의해 개벽이 이루어진다면 같은 차원의 개벽을 두 번이나 되풀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신개벽은 개벽이기는 하지만 천지개벽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정신”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정신은 물질(신체)과 다른 무엇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정신의 이해가 여러 갈래로 갈리고 또 갈린다. 밑으로는 저 식물적인 생명으로부터 위로는 저 도덕적·종교적인 본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숭한 단계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각가지로 주장되어 왔다. 한편으로 심리학에서는 동물의 심리(心理)를 다루고 있다. 동물적인 정신을 전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것의 기본적인 특성을 동물의 심리에서 찾으려는 경향도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의 착한 본성을 더없이 강조한다. “하늘이 명한 것을 사람의 본성이라 이른다.”(天命之謂性, 『中庸』首章) 이렇게 하늘(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받은 사람의 “본성”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정신이라고 본다. 헤겔이 말하는 “절대정신”(absoluter Geist)도 이 본성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그저 언급하는데 그칠 뿐이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정신”이란 식물적인 생명으로부터 해젤의 절대정신까지 품고 있는 매우 넓은 범위의 의미 내용을 갖춘 말(개념)이다. 이것은 그만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저 두루뭉스리 같은 말이라는 것도 뜻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정신이라는 말을 좀 더 반성하여 본다. 이 “정신”(精神)이라는 말은 저 중국문화 속에서 써 온 말과는 그 뜻이 다소 다르다. 그 동안 주로 노장학파(老莊學派) 쪽에서 “정신”이라는 표현을 흔히 써왔다. “정신은 도(道)로부터 생기고 형체의 근본은 정(精)으로부터 생긴다. 그리고 만물도 형체를 갖추고 차례로 생겨났다.(精神生於道, 形本生於精, 而萬物以形相生. 『莊子』知北遊 第二十二) 여기서 말하는 정신(精神)은 사람이 도(道, 사람이 알 수 없는 만물의 본체)로부터 얻은 정기(精氣, 순수한 기)라고 한다. 이렇게 정신은 사람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는 하나 유교에서 말하는 본성(性)이나 순수한 마음(心)과는 다른 것이다. 적어도 주자(朱子)가 말하는 이(理)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노장학파 쪽에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천(天)을 애써 부정하기 때문에 그 도(道)라고 하는 것도 심적인 본성이 아닌 자연적인 본체라고 본다. 굳이 말하자면 그 도는 마음(心)보다 기운(氣) 쪽에 가까운 어떤 근원적인 본체다. 그러므로 이 도로부터 생겨났다고 하는 정신(精神)도 어디까지나 기(氣)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정신을 정(精, 순수한)한 기 곧 정기(精氣)라고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정신이라는 말은 유교 쪽에서도 쓸 수 있다. 사람은 본래 마음씨와 신체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 이 힘은 마음 쪽도 분발시킬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과 몸을 다 같이 분발케 하는 순수한 힘을 생각하게 된다. 이 힘이 바로 정신인데 이 정신이 좀 더 강조되고 좀 더 마음 쪽으로 가까워지면 마침내 정신(精神)을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길도 열린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유교에서 쓴 정신이라는 표현을 살펴본다. “정신이 산과 내에 나타나는 것은 땅과 비슷하다. 「풀이」 정신(精神)도 정기(精氣)를 말한다.”(精氣見于山川, 地也. [注] 精神亦謂精氣也. 『禮記』, 聘義 第四十八) 여기서 구슬(玉)의 순수한 기(精氣)를 정신(精神)이라고 말한다. 구슬이 아름답고 순수한 기운을 갖추고 있어서 이 기

운이 산이나 냇물에서 발산하여 마침내 사람의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슬의 정신(精神, 精氣를 뜻함)이 땅(地)의 순수한 본질을 담았다고 믿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精神)의 원천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정신은 사람 이외의 물건들의 순수한 기운(精氣)도 뜻한다.

“정신이 하나로 모이면 무슨 일인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精神一到, 何事不成. 『朱子語類, 卷八) 이렇게 주자가 말하는 정신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신과는 다르다. 이 인용문 앞 문장이 어떤 암시를 주는 듯하다. “양의 기(陽氣)가 빛을 내면 쇠와 돌도 뚫는다.”(陽氣發處, 金石亦透) 이렇게 양기를 말하면서 정신을 말하는 것은 이 정신(精神)이 양기와 같은 일종의 기(氣)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자는 정신적인 일도 포함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힘 곧 정력(精力)을 정신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주자가 말하는 “정신”이란 사람의 몸과 마음의 근원적인 힘을 뜻한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중국 문화 속에서 정신(精神)은 사람 마음과도 깊이 관계하면서도 순수한 마음과는 끝내 서로 다른 기(氣)에 속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정신이라는 말은 오히려 순수한 마음 쪽에 속해 있다. 이러한 정신의 의미는 주로 일본의 근대 문화에서 유래했다. 일본은 명치(明治) 열대에 서양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가이스트 [Geist(독)] · 스피리트 [Spirit(영)] 등을 정신(精神)이라는 말로 옮겨서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 번역되어 쓰여져 온 말이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져 미묘하게 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정신이라는 말이다. 이 정신이라는 말은 서양철학을 받아들인 일본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도이치철학 특히 헤겔철학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할 때 주로 예술·철학·종교 같은 높은 차원의 문호 영역을 뜻한다. 따라서 저 노장학과 쪽에서 써 온 정신이 기(氣)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저 주자의 순수한 이(理)쪽으로 순수화한 영역이 지금 우리가 문제삼는 “정신”이다.

## Ⅱ. 자연 세계에 대한 정신 세계

대순신앙의 종교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로서 “정신개벽”(精神開闢)이 꼽혀 있다. 그 목적 가운데서 첫 번째로 꼽혀 있는 것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정신개벽이야말로 다른 목적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개벽이란 과연 어떠한 개벽일까? 이 물음에 대한 준비로서 천지(우주)의 개벽(생성)에 대해 어느 정도 살펴보았다. 다시 그 개벽을 간추려 말하면 아무런 형체도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천지 만물이 비로소 생겨난 놀라운 큰 공사(工事)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토목공사가 아닌 천지 만물을 처음으로 짓는 정말 놀라운 큰 공사가 바로 천지의 개벽이다. 이러한 큰 공사는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수께끼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인류 문화의 기나 긴 역사 속에는 인류가 이 놀라운 공사의 수수께끼를 풀어 온 자취가 여러 분야에 걸쳐 뚜렷이 남아 있다. 대체로 신화·종교·철학·과학 같은 분야에 그 자취가 뚜렷하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하늘이 열리고(天開) 땅이 열림(地闢)”이라는 개벽만이 정말 놀라운 큰 공사가 아니다. 인류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정신 세계의 열림”(精神開闢)이라는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큰 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점점 뚜렷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지의 열림 곧 “자연 세계의 열림”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큰 공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정신 세계의 열림” 곧 정신의 열림(精神開闢)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큰 공사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저 중세를 거쳐 근대화의 과정에서 “정신 세계의 열림”(精神開闢)에 대한 자각도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

사람은 본래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먼 옛날부터 어느 정도 “정신 세계”가 자연 세계(천지, 우주)에 못지 않게 위대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문화에서도 정신 세계가 자연 세계(天地, 宇宙)보다 못지 않게 위대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여기에 하나의 보기를

든다.

그러므로 지극히 성실하면(至誠) 정진하여 그침(息)이 없다. 이렇게 그치지 않으면 꾸준히(久) 정진한다. 이렇게 꾸준히 그 보람(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람이 나타나면 그 영향이 멀리 오래(悠遠) 미친다. 이렇게 멀리 오래 미치면 널리 두텁게(博厚) 덕을 편다. 이렇게 널리 두텁게 덕을 펴면 드높이 밝게(高明) 드러난다.

그 넓고 두터움(博厚)은 만물을 싣는 땅(地)의 본성이다. 드높고 밝음(高明)은 대지를 덮는 하늘(天)의 본성이다. 멀고 오래 지속함(悠久)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멀리 오래 생성해 나가는 본성이다.(故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 博厚, 所以載物也. 高明, 所以覆地也. 悠久所以成物也. 『中庸章句』, 第二十六章)

여기서는 정신 세계에 속하는 “지극한 성실”(至誠)과 자연 세계에 속하는 “하늘”(天)과 “땅”(地) 및 “천지”(天地, 宇宙)를 한자리에 맞세워 놓고 몇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서로 견주어 보고 있다. 첫째로 지극한 정성은 덕이 넓고 두텁다.(博厚) 이것은 땅이 넓고 두꺼워 만물을 싣어 주는 놀라운 덕과 서로 맞먹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지극한 성실의 저 넓고 두터운 덕은 땅의 저 넓고 두꺼운 특징과 같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극한 성실은 그 빛남이 드높고 맑다.(高明) 이것은 하늘이 드높고 밝아 만물을 덮어 주고 비추어 주는 놀라운 덕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극한 성실의 드높고 밝은 덕은 저 하늘의 높고 밝은 특징과 같다고 한다. 셋째로 지극한 성실은 그 영향이 멀리 오래오래 미친다.(悠遠) 이것은 천지(곧 宇宙)가 만물을 두루 길이 생성하는 놀라운 덕과 같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극한 성실의 광범하고도 영원한 덕은 저 우주가 무한히 크고 영원한 특징과 맞먹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저 중국 고대문화 속에서 사람의 정신 세계에 속하는 성실(誠)이라는 덕이 지극하면 마침내 자연 세계에 속하는 하늘·땅·우주(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합쳐서 생각한 온 천지)의 놀라운 덕과 적어도 동등할 수 있다는 도덕적인 신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덕사상 쪽으로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여기서 그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성실”은 아무리 지극하다(완전하다)고 해도 사람의 정신 세계에 속해 있다. 이에 대해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가 아무리 높고 밝고, 넓고 두껍고,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특징일



뿐이다. 도덕적인 특성과 물리적인 특징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문화 속에서는 천문학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자연 세계에 대해(특히 우주의 생성과 체계에 대해) 지나치게 압도되어 왔다. 이리하여 자연 세계에 대한 정신 세계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천지개혁에 대한 정신개혁의 독자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래 정신 세계에 속하는 “성실”(誠)의 도덕적인 특성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려는 의도는 주목되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성실의 도덕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이 목적을 위해 저 하늘의 높고 밝음·땅의 넓고 두꺼움·천지의 무궁을 동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연과학이 발전·보급된 오늘날과는 달리 저 고대 문화에서는 천지의 구조와 움직임은 그저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신화적·종교적인 놀라운 대상이었다. 앞에서 본 하늘의 높고 밝음·땅의 넓고 두터움·천지의 무궁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신앙으로 이어지는 신비스러운 대상이었다. “천지의 본성은 한 마디로 다할 수 있다. 그 됨됨이가 한결같다.(곧 성실하다.) 그러므로 헤아릴 수 없이 물건들을 생성한다.”(天地之道，可一言而書也。其爲物不貳，則其生物不測。『中庸章句』第二十六章) 여기서 천지의 본질을 한 마디로 말하면 “한결같음”(不貳，朱子は 誠이라고 풀이함) 곧 성실(誠)이라고 한다. 그리고 천지가 본래 성실하기 때문에 만물을 생성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미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천지와 성실 및 생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천지는 자연에 속하고 성실은 정신에 속한다고 본다. 생성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한다고 본다. 그런데 위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뜻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정신적인 존재인 천지(天地)가 성실하여 만물을 의식적으로 생성(산출)한다.” 성실이란 본래 정신적인 존재에 속한다는 측면을 살리면 이렇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하늘과 땅은 그저 자연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측면을 살리면 다음 같이 이해해야 한다. (2) “자연적인 존재인 천지가 한결같은 질서에 따라 만

물을 전개한다.” 이 두 가지 이해 가운데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2)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 『중용』 속에 있는 사상 쪽으로 보면 오히려 (1)이 주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1)과 (2)를 각각 다시 다음과 같이 간주될 수 있다. (1) 천지는 성실하기 때문에 만물을 낳는다. (2) 천지는 한결같기 때문에 만물이 생긴다. 우선 이 두 가지 이해는 큰 시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만물의 생성을 근대 이전에는 대체로 신화적·종교적으로 이해하였고 근대 이후에는 이론적·과학적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중용』에는 대체로 만물의 생성에 대한 고대적인 이해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 제자백가(諸子百家) 시대를 거친 한 대(漢의 宣帝 이전, 기원전 51년 이전)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어서 날카로운 이론적인 이해도 상당히 깔려 있다. 이 방면에서는 근대적인 요소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천지는 성실하기 때문에 만물을 생성한다.”는 쪽을 추구하는데 힘쓴다.

바로 앞에서 들었던 글 가운데 한토막을 다시 들어 그 의미를 좀 더 추구하여 본다. “천지의 본성은 한 마디로 다할 수 있다. 그 됬됨이가 한결같다.”(天地之道，可一言而盡也。其爲物不貳。) 여기서 “그 됬됨이”(其爲物)는 천지의 본성(天地之道)의 됬됨이를 가리킨다. 천지의 본질이 되어진 그대로의 모습 곧 “천지의 본성의 본래 모습”을 뜻한다. 그런데 이것은 천지의 본성을 강조했을 뿐이지 의미 내용을 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그 됬됨이”를 “천지의 본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리하여 위 문장은 “천지의 본성은 한결같다”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주자는 “한결같음은 성실함이다.”(不貳所以誠也。『中庸章句』第二十六章，注)라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에 따르면 위 문장은 “천지의 본성은 성실하다.”로 나타내야 한다. 그렇다면 천지의 본성이 성실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성실(誠)이라는 도덕적인 특성을 과연 천지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성실은 인격적인 존재(사람, 하느님 등)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천지는 인격적인 존재일까?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문제되는 것은 과연 “성실”(誠)이 무엇인가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천의 도(天之道)다. 성실하려는 것은 사람의 도(人之道)다.”(誠者，天之道也。誠之者，人之道也。『中庸章句』第二十章) 여기서 말하

는 천(天)은 저 하늘(자연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앞뒤의 문맥으로 분명하다. 여기서 천은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를 말한다. 그리고 도(道)는 도덕적인 최고의 특성을 뜻한다. 그러므로 “천의 도”(天之道)는 하늘의 도덕적인 특성을 말한다. (여기서 하늘은 일반적으로 만물의 최고 주재자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그러므로 “성실하려는 것”(誠之)은 사람의 도덕적인 최고 특성을 뜻한다. 이와 같이 위에 인용한 유명한 구절은 “성실은 하늘의 최고 도덕적인 특성이고 이 성실에 따르는 것이 사람의 최고 도덕적인 특성이다.”라는 사람의 도덕원리에 대한 선언이다. 이제 최고 도덕적인 특성인 “성실”(誠)에 있어서의 하늘과 사람의 관계가 밝혀진 셈이다. 곧 하늘은 성실 자체(誠者, 성실이라고 하는 것)고 사람은 그 성실 자체에 따르는 것(誠之者, 성실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의 도덕성과 사람의 도덕성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 『중용』(中庸)의 근본 과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지고 보면 이 관계를 이 책 첫머리에서 선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이르고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 이른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여기서 “본성”(性)을 하늘의 도덕성이라고 보고 “도”(道)를 사람의 도덕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늘의 도덕적인 본성에 따르는 것이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이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하늘의 도덕적인 본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서 하늘이 직접 명령한 본성(하늘의 본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실”(誠)이라고 밝혔다. 이리하여 “성실은 하늘의 (도덕적인) 본성이고 성실하려는 것은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이다.”(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도덕적인 본성과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의 관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면 다음으로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과 저 “천지의 본성”(天地之道)과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과 천지의 본성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용』의 또 하나의 근본 과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천지의 본성은 한마디로 다할 수 있다. 그 됨됨이가 한결같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다.”(不貳)는 “성실하다.”(誠之)와 똑같은 뜻이다.(똑같은 뜻이기는 하나 여기서 굳이 “한결같다”는 말을 선택한 것은 주목된다.) 사람이 성실함과 천지가 성실함을 구체적으로 셋으로 나누어 다음과 밝히려고 애썼다. (1) 사람의 지극한 성실(至誠)의 “그 넓고 두터움(博厚)은 만물을 싣는(載物) 땅(地)의 본성”과 같다. (2) 사람의 지극한 성실의 “그 드높고 밝음(高明)은 대지를 덮는(覆地) 하늘(天)의 본성”과 같다. (3) 사람의 지극한 성실의 “그 멀고 오래 지속함(悠久)은 하늘과 땅(天地)이 만물을 멀리 오래 생성하는 본성과 같다. 이와 같이 사람의 지극한 성실과 땅·하늘·천지의 한결같은 본성과 같다고 선언한다.

이와 같이 『중용』에서는 하느님의 도덕적인 본성과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이 같고 사람의 지극한 성실과 천지(天地, 하늘·땅·하늘과 땅이 합한 것)의 본성이 같다고 한다. 다시 간추려 말하면 하느님과 사람 및 자연(天地는 自然을 뜻함)은 그 도덕적인 본성이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높고 낮음의 차이가 미묘하게 전제되어 있다. “하느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이르고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 이른다.”여기서 하느님이 명한 본성은 엄밀히 따지면 하느님에 속하고 이 본성에 따르려는 것이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이다. 이것은 저 “성실”(誠)이 본성에 해당하고 “성실하려는 것”(誠之)이 본성에 따르는 것(率性)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루어 더욱 분명하다. 여기에는 명령하는 하느님과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람의 높고 낮음이 뚜렷하다. 그런데 도덕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도덕이 강조된 나머지 하느님의 도덕성과 사람의 도덕성이 혼동되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이기론(理氣論)이 등장함에 따라 더욱 심해졌다. 하느님의 본성도 사람의 본성도 다 같이 이(理)라는 해석이 잘못 이해되면 “천성”(天性)과 “인성”(人性)이 혼동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동은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과 자연의 본성 사이에서 더욱 심해지는 편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의 “지극한 성실”(至誠)을 땅·하늘·천지와 비교하면서 “넓고 두터움”(博厚)·“높고 밝음”(高明)·“멀고 오래 지속함”(悠久)의 세 측면에서 서로 대응하고 서로 같다고 애써 밝혔다. 그런데 이 세 측면이 본래 땅·하늘·천지의 자연적인 특성이다. 땅은 넓고 두

겹고, 하늘은 높고 밝으며, 하늘과 땅은 무궁하다는 것은 자연(천지)의 특성이자이다. 이렇게 위대한 자연의 특성과 비교하여 사람의 “지극한 성실”(도덕적인 본성)을 밝힌다는 것은 자연의 본성이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보다 근원적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중용』은 이러한 비교를 한 뒤 이어 “천지의 본성”(天地之道)의 위대함을 애써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천지의 본성은 한 마디로 다할 수 있다. 그 됨됨이가 한결같다. (곧 성실하다.) 그러므로 헤아릴 수 없이 물건들을 생성한다.”(위에서 인용했음)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물건들(萬物)을 생성한다.”고 강조하여 “사람의 지극한 성실”보다 결정적으로 위대함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보다 자연의 질서를 더 위대하다고 믿는 경향은 저 오행설(五行說)·음양설(陰陽說)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널리 적용됨에 따라 더욱 심해졌다.

지금까지 대체로 중국 고대문화(殷·周로부터 前漢에 이르는 文化) 속에서 하느님과 사람 및 자연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살펴보았다. 사람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크나 큰 관심이 하느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도덕성의 근원이 문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하느님에 대한 관심은 다음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하느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이른다.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 이른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誠者)은 하느님의 도(道)다. 성실하려는 것(誠之者)은 사람의 도(道)다.” 여기에서 사람의 도덕성을 찾기 위해 하느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강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인류의 새로운 경향이 엿보인다. 도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소박한 종교에 대한 반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종교보다 도덕에 관심이 더 쏠리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저 유교의 고전인 사서(四書) 속에선 도덕에 대한 강한 관심 때문에 겨우 하느님에 대해 관심을 보일 뿐이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는 하느님을 점점 사람에게 접근시키다가 결국 하느님을 망각하거나 부정하기 쉽다. 저 유교가 이 방향으로 걸어온 것이 아닐까? 이 방향을 재촉하는 중요하고도 강력한 요소가 있었다. 하느님의 자리가 비어감에 따라 그 자리를 점점 메워가는 강력한 상대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인데 자연은 점점

대자연으로 그 위세를 떨쳐 갔다. 이러한 방향을 촉진해 온 세력이 오행설·음양설·이기론 같은 학설이었다. 이렇게 문화의 방향이 흐르는 동안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소박한 민중에게 내맡겨져 왔다. 그래서 오늘날 동아시아 문화의 영역에서 종교의 참된 지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 Ⅲ. 무자기(無自欺)

오늘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느님과 사람 및 자연의 참된 관계를 깨닫는 일이다. 그 동안 이 세 영역의 경계와 특성이 너무나 애매하고 혼동되어 어디까지 종교인지 어디까지 정치인지 어디까지 학문·과학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느님·사람·자연이 저마다의 제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혼동과 혼란 속으로 빠져 버리기 마련이다. 물론 이 세 영역의 제자리를 제대로 깨닫는 일이 쉬울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의식하고 해결하려는 자각의 정도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오늘의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일이 무엇보다 다급하다고 믿어진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하느님과 사람 및 자연의 저마다의 제자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혼돈으로부터 질서(카오스로부터 로고스)로 끌어올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및 만물을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끌어올린 저 놀라운 토목공사가 천지(우주)의 개벽이었다. 이에 대해 하느님과 사람 및 자연의 저마다의 제자리를 매김으로써 삶을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끌어올리는 저 천지개벽과 맞먹는 놀라운 일은 과연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지개벽”(天地開闢)은 토목공사에 비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과 사람 및 자연을 카오스(혼돈)로부터 로고스(logos, 질서, 이성)로 끌어올리는 일은 결코 토목공사에 비유할 수는 없다. 깨닫고 보면 다 같이 놀라운 일이지는 하나 그래서 다 같이 “개벽”이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아예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동안 만물을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끌어올린 “놀라운 일”은

쉽게 알아차리고 “천지개혁”이니 그저 “개혁”이니 하여 떠들썩하게 말해왔다. 그러는 동안에 하느님과 사람이 대자연의 위력 밑에서 제 빛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점점 정치와 경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느님과 사람의 제자리는 점점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갔다. 이러한 경향은 그 동안 여러 사정으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심한 편이었다.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정신의 “개혁”이 외쳐지게 되었다. 종교 쪽에서는 대순신앙에서 독자적인 정신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독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는 주목할 만한 방향 설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무자기”(無自欺)다. 이렇게 대순신앙에서는 “무자기”를 통해 정신의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제 “무자기”에 의한 정신개혁을 이념적으로 좀 더 깊이 이해하여 본다. 먼저 “무자기에 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 물론 이 말은 저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이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른바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大學章句』六章) 여기서 유교에서 도덕의 측면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의지의 성실”(誠其意)을 풀이하는 말로 “무자기”라고 하였다. 문맥상으로 여기서 “무자기”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동사(움직씨)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을 명사로 쓸 때 그 뜻은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태도”를 뜻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필자는 “스스로 속이지 않음”이라고 굳이 표현한다. 이와 같은 “스스로 속이지 않음”(無自欺)<sup>3)</sup>을 통해 정신의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대순신앙에서는 매우 강조한다.

무엇보다 “스스로 속이지 않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자(朱子)는 그의 『대학장구』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무(毋)는 금지를 뜻하는 말이다.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은(自欺云者)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함을 알고도 마음의 움직임이 충실치 못함이 있는 것이다.”(毋者, 禁止之辭. 自欺云者, 知爲善以去惡, 而心之所發, 有未實也. 『대학장구』 6장 풀이) 이와 같이 주자는 “스스로 속임”(自欺)을 착한 일을 행하

3) 위 『대학』의 원문은 “毋自欺”로 되어 있는데 이 “무”(毋)는 “무”(無)와 서로 같이 쓰인다.

고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알고도 “마음의 움직임”(心之所發)이 충실치 못함을 뜻한다. 다시 간추리면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참으로 중대한 의미가 숨어 있다. 어쩌면 저 『대학』의 저자도 이 저서를 풀이한 주자도 채 알아차리지 못한 의미가 숨어 있다.

과연 그 숨은 중대한 의미란 무엇일까? 사실상 위 주자의 풀이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부각시키면 다음과 같다.

- (1) 선(善)을 해야 함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악(惡)을 버려야 함을 알고도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

주자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금지”(禁止)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지 않음”(毋自欺)이다. 이것을 다시 간추려 다소 바꾸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 (1) 선(善)인 줄 알고 선을 행하여야 한다.
- (2) 악(惡)인 줄 알고 악을 버려야 한다.

여기에 숨어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의미를 찾아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은 본래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짓을 하건 그것이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본래 스스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착한 일을 한다면 칭찬하게 된다. 모르고 착한 일을 하면 엄밀히 따지면 칭찬할 수 없다. 또 알고도 나쁜 짓을 하면 나무라게 된다. 모르고 나쁜 짓을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나무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은 본래 자각적(自覺的)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자의 “무자기”(毋自欺) 풀이에 사람이 본래 “자각적인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주자도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이 자각적인 존재의 참된 의미를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이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 없었다. 자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자각이 없는 자연과 다르고 전지·전능(全知·全能)한 하느님과 다른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의 독자성을 심각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문화를 기다려야만 했다.

사람은 하나의 갈대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연 속에서도 가장 연약하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을 눌러 죽이기 위해 온 우주가 무



장하지 않아도 된다. 한 줄기 김, 한 방울 물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사람을 눌러 죽여도 사람은 그 죽이는 우주보다 더 고귀할 것이다. 그건 사람은 제가 죽는다는 것도 우주를 못 당한다는 것도 알지만 우주는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팡세』 파스칼, 권용호 옮김, 홍신문화사, 2001, 146쪽)(필자가 많이 고쳐서 여기에 인용했다.)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수학과 물리학으로 유명하고 종교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 프랑스 지성인이다. 여기서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여 우주(곧 자연)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부각시켰다. 그는 또 하느님이 사람이나 자연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다음과 같이 미묘하게 표현하였다. “하느님을 느끼는 것은 심정이고 지성은 아니다. 하느님이 심정으로 느껴지고 지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신앙이 성립한다.”(위 책, 120쪽. 여기서도 필자가 수정했다.) 여기서는 사람과 자연의 영역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지만 하느님은 심정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여 곧 신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여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미묘하게 조명하고 있다. 파스칼의 이와 같은 날카로운 근대적인 정신은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새로운 인간을 그 지렛대로 삼고 있다. 하나의 갈대로서 사람은 본래 생각하기 때문에(자각적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주보다 고귀하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지만 하나의 갈대기에, 자연 속에서도 가장 연약하기에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사람의 영혼은 “본성적으로 종교적이다.”

위 주자의 “무자기” 풀이에 숨어 있는 중대한 의미 가운데 둘째는 사람은 본래 선(善)을 알고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 혹은 악(惡)을 알고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의 의미다. 여기서는 사람은 본래 선과 악을 알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첫째는 스스로 알고 실천하는 삶 속에서 그 스스로 아는 것 곧 “자각”(自覺)이 주목되었다. 둘째는 알고 스스로 실천하는 삶 속에서 그 스스로 실천하는 것 곧 “자율”(自律)이 주목된다. 사람의 자율성도 주자의 “무자기” 풀이 속에 깊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대한 의미는 역시 근대문화에서 밝혀질 수 있었다.

의지의 자율이 모든 도덕적인 법칙과 이 법칙에 따르는 의무(義務)의 유

일한 원리(原理)다. 이와 반대로 제멋대로의 의지의 온갖 타율(他律)은 한갓 어떠한 책임의 기초도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의 원리와 의지의 도덕성의 원리에 대립한다. (『실천이상비판』 칸트, suhrkamp 판 전집 7권, 144쪽)

여기서 칸트는 “의지의 자율”(意志의 自律, *Autonomie des Willens*)이 모든 도덕적인 법칙의 근본원리라고 엄숙히 선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법칙 곧 “도덕법칙”(道德法則)은 저 “자연법칙”(自然法則)과 대립한다. 자연법칙이 온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대해 도덕법칙은 온 도덕 세계를 지배한다고 칸트는 굳게 믿는다. 이리하여 자연법칙의 원리가 “자연의 필연성”(必然性)인데 대해 도덕법칙의 원리는 “의지의 자율성”이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근대의 철학자로서 자연 세계와 도덕의 세계는 그 법칙과 원리를 달리한다고 칸트는 확신하였다. 이것은 근대문화의 역사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자연 세계와 도덕 세계는 그 원리를 달리하는 아주 차원이 다른 세계라고 믿는다. 따라서 도덕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존엄성”(尊嚴性)이 무엇보다 존중된다.

이제 대순신앙의 정신개벽의 깊은 의미도 어느 정도 부각된 셈이다. 저 칸트의 도덕 세계는 대순신앙의 정신 세계와 맞먹는다. 칸트가 말하는 도덕 세계는 사람의 온 “실천의 세계”를 뜻하기 때문이다. 사실 저 헤겔의 “정신”은 칸트의 도덕 세계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순신앙에서 말하는 정신 세계는 근대문화의 사람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저 칸트의 “의지의 자율”은 대순신앙의 “무자기”(無自欺)를 잘 조명하여 준다. 의지의 자율은 바로 사람의 의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법칙이 되게 하는, 사람의 의지만이 갖추고 있는 독자적인 구조다. 사람의 의지만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법칙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법칙을 세우고 스스로 그 법칙에 다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자연적인 존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법칙을 세우고 스스로 그 법칙에 따를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다. 사람만이 스스로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자기입법(自己立法)적인 존재라고 불리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無自欺)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스스

로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법을 세워 놓고 그 법을 어겨 거짓말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自欺)이다. 스스로 자기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어겨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무자기”는 금지 아닌 권장쪽으로 표현하면 “네가 법을 세운 대로 너는 지켜라”로 된다. 이것이 바로 자율적인 삶이다. 대순신앙의 “무자기”는 그 긍정하는 쪽으로 이해하면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진리의 선언이다. 이 진리의 실현이 바로 정신개혁이다.

